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죽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실 이유가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진보가 빌립보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22~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시기 원했던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평가가 아닌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27절 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복음에 가치에 맞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삶과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함부로 살면 복음이, 그리스도가 싸구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27절 하)

27절의 ‘한 마음으로’는 ‘한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문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같은 목적을 가질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나뉘어져 분쟁하는 교회는 어린 믿음의 교회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주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마음을 합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28절)

28절의 ‘대적’은 성도들을 핍박했던 빌립보의 이교도들, 혹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더 나아가 악한 영(사단)과 어려운 상황을 뜻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두렵게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대적’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온갖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고, 두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해질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빌 1:20)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18(월)	1/19(화)	1/20(수)	1/21(목)	1/22(금)	1/23(토)	1/24(주일)
N/A	창1-3	창4-8장	창9-12장	창13-17장	창18-19장	창20-23장

QT

이번 주 QT 말씀

1/18(월)	1/19(화)	1/20(수)	1/21(목)	1/22(금)	1/23(토)	1/24(주일)
마 4:1-11	마 4:12-25	마 5:1-16	마 5:17-26	마 5:27-37	마 5:38-48	마 6:1-15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2. 나의 믿음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3. 나는 복음의 가치에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살고 있나요? 삶을 나누어 보세요.
4.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5.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